

지역 경제계, 광주수영대회 성공 팔 걸었다



삼성전자 메인 스폰 이어 냉장고 기증·체험관 운영

전남건설협회·농협·국토정보공사 등 입장권 구매 잇따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계도 대회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민 참여를 통한 대회 분위기를 위해 입장권 구매·제공은 물론 기업마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삼성·ICT 체험관 운영-의료관광·금융 서비스=7일 광주·전남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이 가전제품 제공·ICT 체험관 운영·셔틀버스 운행 등 기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펴고 있다.

FINA(국제수영연맹)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의 활동이 가장 눈에 띈다. 광주

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수영대회 광주 유치가 확정되자 지난 2015년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광주시를 공식 후원해왔다.

삼성전자는 메인 스폰에 이어 선수들이 삼성 전자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선수촌에 삼성제품을 설치·운영한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1996대를 대회조직위에 기부했다. 이 냉장고는 선수촌과 경기장 기능실, 미디어센터 등에 설치됐다. 수영대회가 끝나면 냉장고는 광주지역 사회단체 등에 기부된다.

셔틀버스 운영대행사인 금호고속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선수들과 스태프의 발

이 된다. 금호고속은 선수촌과 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선수촌-남부대, 선수촌-조선대, 선수촌-염주체육관은 물론 선수촌-여수엑스포 오픈워터 경기장까지 선수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다. 금호고속은 1일 최대 150대 등 대회 기간 총 버스 3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회 공식 후원은행인 광주은행은 모든 직접 객장에 '수리'와 '달이' 인형을 전시하고, '수리&달이' 인형샷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대회 분위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입촌 선수단과 미디어진들이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내 선수 주거 구역과 미디어 주거 구역에 2개 임시우체국을 운영한다.

KT·국립광주과학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부대 주경기장인 마켓스트리트 내에 5G 기술이 집약된 ICT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광주 첨단 의료를 체험할 수 있는 의료관광홍보관도 개설한다.

◇입장권 구매 줄이어=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입장권 1억여어치 구매를 시작으로 4월 2000만원, 5월 1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어치를 구매해 저소득층과 사회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대회조직위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은 입장권 8000만원어치를 구매해 초록우산재단에 기증했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 양파 10kg들이 1500개망을 기증했다.

금호고속 50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5000만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2000만원, (주)국민 1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각각 구매해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3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000만원, 광주도시철도공사 2900만원 등 지역 경제계가 입장권 구매에 적극 나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2관왕'

정부 경영·사업평가 전국 첫 동시 최우수 등급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2019 테크노파크 경영성과평가'와 지역 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모두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경영·사업평가 동시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전국 최초다.

7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테크노파크 19곳을 대상으로 매년 기관 경영평가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S-A-B-C 등급)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올해 평가 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경영성과평가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는 주요 사업·기관관리·종합성과 등 3가지 측면의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시스템 구축, 핵심 추진 전략과 기관발전계획 재정립,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 효율화 등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은 지난 2003년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지

역 내 타 기관 협력, 신규 기업의 사업 참여, 데이터 기반 활용도, 목표대비 성과,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평가 실시 이래 최우수등급을 처음 받은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부터 전남도와 전남지역산업평가단이 참여한 전남반을 구성,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분석 등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관 경영평가와 사업 성과평가 두 부문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전국 테크노파크 중 전남테크노파크가 유일하다.

사업평가 S등급으로 내년 전남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은 올해(172억원)보다 국비 약 76억원이 증가한 248억원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예산 추가 확보로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제품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전남도, 지역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해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분양가심사위 명단·회의록 의무 공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 주택조합 중복 가입 금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아파트분양가 심사위원회 제도가 크게 바뀐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지역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공개 등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기초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심사위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분양가심사위 심의가 공공택지에만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고분양가 문제가 제기된 광주지역의 경우 모두 민간 재개발 아파트여서 분양가심사위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분양가가 공개되고, 분양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분양가심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에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원천 배제토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심사위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안건을 심사할 때 위원의 제척(이해 특수관계자를 배제) 사유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미확정 사업계획안(案)만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잦았기 때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초복 특집전' 초복(7월12일)을 앞두고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식품매장에서 보양식을 할인하는 '초복 특집전'을 연다.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 '특가 쿠폰'을 내려 받으면 전복(5마·1만3500원), 울반 흑마늘 삼계탕(900g·7800원) 등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국내 일본계 대기업 흑자 48% ↑ 투자 10% ↓

순이익 60% 분사에 배당

국내 일본계 대기업들이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었으며, 순이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2개 외국계 기업(공동체 포함)의 지난해 경영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합계가 각각 195조7796억원과 8조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1.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3.3%나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일본계 기업 13곳은 같은 기간 매출이 15조9403억원에서 18조8250억원으로 18.1%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333억원에서 1조5350억원으로 무려 48.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실적이 좋아졌으나 일본계 기업들의 지난해 투자액은 4202억원으로, 2016년(4679억원)보다 10.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전체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같은 기간 평균 21.4% 증

가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일본계 대부분체인 산외대부는 영업이익이 2016년 1963억원에서 지난해 4337억원으로 무려 120.9%나 늘었지만 지난해 투자액은 12억원에 불과했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엘코리아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073억원에서 234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1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1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866회)

당첨번호	2등 번호	3등 번호	
9 15 29 34 37 39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240,409,000	9
2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49,420,787	68
3	5개 숫자 일치	1,651,408	2,035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4,919
5	3개 숫자 일치	5,000	1,770,017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계좌회계 대리점 눈노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